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군선교 사역자간의 윤리적 제안



박기영 군종목사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지난 10여 년간 불교의 군종장교(법사) 수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군목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었다. 군목이 배치되지 못하는 군인교회는 날로 많아져만 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역자가 없는 군인 교회의 사역을 위한

- 약력 : •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D.C.C.)
• 육군 특전사 사자교회 담임목사

민간인 성직자의 숫자는 군목의 수를 앞지를 정도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부족한 군목의 자리를 채우고, 예배활동의 지원을 위해 민간인 성직자가 군에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윤리 도덕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민간인 성직자들이 군의 특수성이나 군목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선교 현장의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군목들과 잦은 마찰을 빚게 되었고, 그 갈등의 폭이 점점 커지게 된 것이다. 만약에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간의 갈등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효율적인 군선교 사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자는 연구를 위해 조사한 설문 자료를 근거로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의 현황과 문제가 되는 점과, 군선교 사역자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가 효율적인 군선교를 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들을 최근에 제정된 “국방부 훈령 제691호(’01.11.12 제정)”와 “육군규정 178(’01.1.1 제정, ’03.5.1 부분개정)”을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군목

국방부 군종실에 의해 선발되어 소속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소정의 군사 및 실무 교육을 마치고 임관한 군종장교로서 각 부대 지휘관의 군종참모와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종교활동, 교육활동, 선도활동 및 대민활동의 임무를 띠고 사역하는 기독교 목사이다.

나. 민간인 성직자

육군규정에는 군종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인 성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성직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의미한다.

다. 군선교 일반 교역자

군선교를 위한 자치회로서 민간인 성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에는 군선교를 위한 민간 성직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원래 설립된 취지에서 일부 변질된 모습이 있다.

라. 군선교 사역자

이 용어는 매우 포괄적이며, 군선교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평신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군선교 사역자는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만을 의미한다.

4. 민간인 성직자의 현 실태

가. 민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

1) 군목들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다. 사역하고 있는 민간교회가 있기 때문에 군인교회에 대해서 협동목사라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군목들과 매우 협조적이다. 예를 들어, 주보에도 담임목사를 군목으로 하며, 본인은 협동목사로 기록한다.

2) 재정적인 지원이 원활하다. 각종 부대 행사나 군인교회 행사시에 민간인 성직자가 본래 담임하고 있는 민간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군인교회에 도움을 주며 부대와의 관계에서도 상호 친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군인교회에서 사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군인교회의 열악한 재정적인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군인교회에 사례를 요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군인교회 재정 장부의 기록 상태도 매우 양호하며, 필요시 군목에게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보고하거나 공개한다.

나. 군인교회만을 전담하는 민간인 성직자

1) 군인교회에 대한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일부 민간인 성직자는 군인교회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군인교회의 담임목사임을 주장한다. 이들 가운데는 군목을 지원하기 위해 위촉되었다는 개념이 없어서, 군목의 지도나 감독을 거부하며, 심지어 어떤 사단군목은 “통제 불가능”이라고 하소연하며, 상급부대에서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한다.

2) 재정적인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다. 부대 행사나 위문 시에 대대급 군인교회 재정으로는 지원할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3) 사례비 지급문제로 빈번한 갈등이 있다. 대대급 군인교회의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함에도 일부 민간인 성직자는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장병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교회재정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사례비로 지출할 뿐 아니라, 현금사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 군인교회 신자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다. 부정기적인 지원을 하는 민간인 성직자

한 사람의 민간 성직자가 군인교회를 전담하거나, 매주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고, 여러 민간 성직자들이 한 군인교회를 순차적으로 예배지원을 하는 민간인 성직자들로 업무적인 차원에서 군목과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적다.

라. 민간인 성직자로 인해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

1) 군 지휘계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모 부대에서는 군목(군중참모)과 사전 협조 없이 장관급 지휘관을 먼저 독대한 사례가 발생하여 다른 일반참모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등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간인 성직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2) 민간교회의 지원으로 군인교회가 건축되었어도 기부 채납에 의해 군부대에 헌납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시설물에 대해 자기 영향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인 성직자는 교회 건축에 기여한 공로를 근거로 군인교회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며, 소속 부대 군목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등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대대교회는 교회 이름에 자신이 속한 교단을 명시하여 그 군인교회가 자신이 소속한 교단의 교회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군인교회는 한국군종목사단 소속교회이므로 어느 특정한 교단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주보나 교패 혹은 명패에 특정교단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잘못된 행태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3) 군목에게 집단적인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군목이 육군규정에 어긋나는 행동들에 대해서 민간인 성직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때 순순히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으나, 일부는 오히려 군목이나 소속 부대장에게 노골적인 협박성 반응- 자신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진급에 영향이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해 국방부에 진정서를 올리겠다는 등-을 보이는 등 군선교 사역을 위해 힘쓰는 것보다는 군목들을 비방하고,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민간인 성직자들도 있다.

4) 민간인 지원성직자가 연대교회를 담당할 경우 매우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인다. 대대 군인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연대군목과 협조하거나 지도 받기를 거부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연대교회 목사로 위촉되었을 때는 자신을 연대 군종장교로 착각하고 대대 교회에서 사역하는 민간인 성직자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간인 성직자가 연대교회를 담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연대교회의 종교활동만 책임을 질 뿐이지, 예하 부대인 대대교회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그는 분명히 민간인 성직자일 뿐이지 지휘계통상 예하 부대 민간인 성직자를 지도하는 군종장교와 같은 권한은 없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자 육군에서는 “민간인 성직자

군종활동 지원규정”(육군규정 178, 2001.1.1)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육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인 성직자는 그것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육군규정에 명시된 소집교육에 응하지도 않는 등 비협조적인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때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민간인 성직자를 육군규정에 근거해서 처리하고자 해도 이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목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설문조사 배경

본 연구자는 군선교연합회 주관으로 ‘군선교 사역자간의 윤리적 제안’이라는 논제를 발제하기 위해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을 대상으로 각각 두 가지 종류의 설문을 작성하여 2003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에 응한 군목은 82명으로서 부대별 각종 회의시에 설문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직접 설문을 작성하게 했으며, 해군과 공군 군목은 제외되었다. 민간인 성직자들에게는 소속 부대 군목을 통해 200여 장의 설문지를 전달했으나, 우편으로 접수되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설문지를 보낸 사람은 37명에 불과했다.

6. 연구의 제한점

가. 민간인 성직자의 설문 응답자가 군목에 비해 적었다.

군목이 응답한 설문지가 82매인 반면, 민간인 성직자가 응

답하여 우편 접수된 설문지는 37매에 불과하므로, 각종 사역 현황이나 의식구조에 대한 조사에서 민간인 성직자에 관한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나. 민간인 성직자의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본 연구자는 설문을 조사 분석한 것 외에 여러 군목들을 통하여 민간인 성직자에 대한 의견을 접하고, 그러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다. 반면 민간인 성직자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민간인 성직자가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그들이 군목들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갈등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 각 부대 지휘관의 직접적인 의견이 없다.

본 연구에는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들에 의해 작성된 설문을 근거로 분석되었다. 민간인 성직자나 군목들에 대한 지휘관의 소견은 설문을 통해 일부 제시되었을 뿐, 민간인 성직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부대의 지휘관들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이나 설문조사 내용이 없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II.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의 사역 현황

현재 군종 목사의 감원으로 인해 민간인 성직자의 군 사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3군사령부 예하 부대의 경우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 인원수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3군 예하 부대 군목, 민간인 성직자, 교회숫자 현황
(3군사령부 군종실 제공)

구 분	군 목	증감	민간인성직자	증감	교회숫자	증감
'97년도	100명	17명 감소	197명(추정치)	85명 증가	384동	10동 증가
'03년도	83명		272명		394동	

<표 1>에 의하면 3군사령 부에 소속된 군목은 '97년에 비해 17명이 감소된 반면, 민간인 성직자는 85명이 증가되었다. 군선교연합회에서는 현재 전군에서 사역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의 숫자를 450-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의 숫자는 1:4 정도가 될 것이다. 교회 숫자는 6년 동안 10개 동이 증가되는 데 그쳤는데, 이는 군인교회의 숫자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1인당 담당 교회 숫자

구 분	계	1등	2등	3등	4등 이상
군 목	82명	27명(33%)	23명(28%)	14명(17%)	18명(22%)
민간인 성직자	37명	26명(70%)	9명(25%)	2명(5%)	.

<표 2>에 의하면 군목은 1인당 평균 2.3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민간인 성직자는 1인당 평균 1.4개의 대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대별 사역규모

구 분	계	연대급	여단급	사단급	군단급
군 목	82명	42명(52%)	10명(12%)	27명(33%)	3명(3%)
구 분	계	중대급	대대급	연대급	여단급
민간인성직자	37명	3명(8%)	29명(79%)	4명(10%)	1명(3%)

<표 3>에 의하면 군목은 최소한 연대급 이상의 부대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민간인 성직자의 대부분은 대대급(29명, 79%)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목 10명이 여단급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통계치는 상대적으로 군목 숫자가 매우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4〉 연령대 분포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세 이상
현역군목	82명	8명(9%)	53명(65%)	19명(24%)	2명(2%)
민간인성직자	37명	.	1명(2%)	12명(33%)	24명(65%)

<표 4>에 의하면 군목의 응답자는 30대가 53명(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인 성직자 50세 이상이 24명(65%)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사역자들의 노령화는 20대 초반 장병들에 비해 한 세대(30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많은 대부분의 민간인 성직자들이 신세대 장병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70세가 넘는 민간인 성직자들도 일부 부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서, 65세라고 규정해 놓은 연령 제한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육군규정 178>대로 시행되지 못하

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민간인 성직자의 연령제한 문제이다.

〈표 5〉 예배 참석 장병 인원(간부 가족 포함)

구 분	계	100명 이하	101-150명	151-200명	200명 이상
현역군목	82명	25명(31%)	22명(27%)	9명(10%)	26명(32%)
민간인성직자	37명	23명(63%)	9명(24%)	3명(8%)	2명(5%)

<표 5>에 의하면 군목의 경우 예배 참석 인원이 10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인 성직자의 경우 63%(23명)가 100명 이하의 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간인 성직자의 대부분은 주 2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군인교회의 전임목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민간인 성직자들이 섬기는 교회의 예배 참석 숫자가 적은 이유는 대부분 대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부대 내에서 선교활동의 제한으로 병사들을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군목의 경우 200명 이상(26명 응답, 32%)의 신자들이 참석하는 부대에서는 주 3회 정기 예배와 구역예배 및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등 다양한 신앙지도 외에도 장병들을 위한 인격지도나 위문활동, 각종회의 참석 등 지휘관의 참모로서의 감당해야 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교회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의 업무 만족도

민간인 성직자가 자신의 업무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으며,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서 지휘관이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표 6〉 민간인 성직자의 군종활동 만족도

구 분	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아니다
인원(백분율)	37명	24명(65%)	12명(32%)	1명(3%)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인 성직자의 65%(24명)가 자신의 군선교 사역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군선교 사역에 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영혼구원에 대한 보람(14명)이 가장 많았다. 군선교 사역의 애로사항으로는 관심과 지원 부족(7명), 소속부대 간부와의 관계상의 어려움(3명), 잦은 부대 이동(2명)순으로 응답하여, 민간인 성직자들이 느끼는 군선교의 제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민간인 성직자의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잦은 부대이동으로 인한 군선교의 제한점을 제외하고는 군목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은 잦은 만남을 통해서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민간인 성직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군목은 대대교회는 연대교회의 지체이며, 예하 부대이기 때문에 일부 대대교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인 성직자들이 부대 간부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역시 군목의 중

재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때로 군목들은 민간인 성직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차원에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소집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 성직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 군목의 애로 사항이 있다. 다음 표는 민간인 성직자와 소속부대 군목과의 만남에 대한 설문분석 내용이다.

〈표 7〉 민간인 성직자가 소속 부대 군목과 만나는 빈도

구 분	계	필요시	분기 1회	연 1-2회	만난 일 없다
인원(백분율)	37명	22명(59%)	3명(8%)	7명(18%)	5명(15%)

<표 7>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민간인 성직자는 군목들과 수시로 만나거나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지만, 설문 응답자의 15%에 해당하는 5명은 1년 내내 한 번도 소속부대 군목과 만난 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군선교를 하고 있는 사역자들간에 1년 동안 단 한 번의 만남이 없는 것만을 보아도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간의 관계가 얼마나 소원한가를 알 수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업무협조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인 성직자가 군목에게 사전에 요청하여 만날 수도 있겠지만 군목의 입장에서는 많은 숫자의 민간인 성직자가 있을 경우 대부분 소집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만날 수 있다.

〈표 8〉 군목에 의한 민간인 성직자 소집교육 실시 여부

구분	계	연 1-2회	분기 1회	미실시	무응답
인원(백분율)	82명	35명(43%)	7명(9%)	27명(32%)	13명(16%)

<표 8>에 의하면 군목은 42명(52%)이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미실시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27명(32%)이나 되는데, 주된 사유로는 서로간의 시간 제약으로 협조가 어렵거나, 상급부대(사단)에서 통합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연대에서 별도로 실시하지 못했거나,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들이 종종 만나서 구두로 업무협조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인 성직자들이 소집교육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민간인 성직자들이 군목 주관의 소집교육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을 군목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군목들은 주장한다.

〈표 9〉 민간인 성직자에 대한 군목의 만족도

구분	계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인원(백분율)	82명	15명(18%)	49명(59%)	18명(21%)

<표 9>에 의하면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의 군선교 사역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18%)하기보다는 불만족하다고 응답(21%)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다고 응답한 의견은 민간인 성직자들이 우호적이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며, 군목의 경험에 있기에 매우 협조적

이다. 또한, 물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등 장병들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섬긴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 군목이 불만족하게 여기는 사유는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통제가 불가능하며, 군 계통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군목 비난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또한, 군인교회를 개인 교회인 것으로 생각하여 민간 목회자처럼 대접받기를 원하며, 지휘부담을 주어서 갈등과 마찰이 있고, 자질이 부족하여 신세대 장병에게 맞지 않는 메시지를 증거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군목이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은 주로 민간 목회자가 없이 단지 군인교회에만 전념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이다.

이런 경우는 일부 민간인 성직자들이 군목을 배제하고 지휘관과 직접적으로 자신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거나 업무협조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민간인 성직자들은 지휘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표 10〉 민간인 성직자가 느끼는 지휘관의 업무 지원 정도

구분	계	적극 지원	보통	무관심	힘들게 한다
인원(백분율)	37명	18명(49%)	9명(24%)	7명(19%)	3명(8%)

<표 10>에 의하면 지휘관들이 종교행사에 대해서 적극 지원한다고 응답한 민간인 성직자들은 18명(49%)인 반면,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힘들게 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10명(27%)이나 되었다. 특히 민간인 성직자가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8%(3명)에 이른 것은 지휘관의 종교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민간인 성직자와 지휘관과

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군목들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사안으로 군선교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인 성직자가 지휘관에 의해서 힘들어할 때에 군목과 함께 협조적인 관계를 이루어간다면 능히 극복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본다.

〈표 11〉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 지휘관이 군목에게 요구하는 사항

구분	계	받아본 적 있다	없다	무응답
인원(백분율)	82명	23명(28%)	39명(48%)	20명(24%)

<표 11>에 의하면 군목들은 지휘관으로부터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 군목이 중재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거나 건의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8%(23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지휘관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지휘관이 직접 나서기를 꺼리고 군중 참모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형식으로 군목이 중간 역할을 해주기 원한다.

지휘관이 군목에게 요청하는 주된 내용은 <육군규정 178>에 명시되어 있듯이 군목이 직접 민간인 성직자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감독해 주기를 바라며, 민간인 성직자들이 군목을 통해서 지휘관에게 건의(지휘계통의 확립)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도덕적인 자질 미달로 인한 간부와 의 갈등으로 민간인 성직자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교회 재정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군목이 직접 활동해 주기를 요청할 때도 있다.

이러한 지휘관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 군목들은 민간인 성직자와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고 교육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는 민간인 성직자가 자원해서 사임하도록 하거나 상급부대에 해촉 건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군목들은 마음이 약하거나 부대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생각과 민간인 성직자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해촉 건의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군규정 178> <제8조 해촉사유>에 보면 군중활동 지원 성직자에게서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 해지를 통보하고 해촉하도록 되어 있다.¹⁾

군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의 경우도 군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불명에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부 민간인 성직자들은 군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충분한 해촉 사유가 됨에도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난감할 때가 있다. 다음 표는 설문 응답한 군목들이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한 사례에 대한 설문분석 내용이다.

1)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중활동 지원규정(2003.5.1 부분개정, 육군본부)

제8조 해촉사유

1. 정신전력 증상에 저해 요인이 되는 경우
2. 군 조직에 피해가 되는 행위
3. 보안성 위배 행위
4. 신앙적 교리적 위배 행위
5. 도덕적 윤리적 지탄 행위
6. 군중활동 저해 행위
7. 기타 해촉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

〈표 12〉 군목에 의한 민간인 성직자 해촉 건의

구 분	계	해촉건의	해촉사유 없음	무 응 답
인원(백분율)	82명	13명(16%)	49명(60%)	20명(24%)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군목들 가운데 16%(13명)나 지휘관에게 민간인 성직자 해촉 건의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

군목들이 민간인 성직자 해촉 건의를 하게 된 주된 내용은 민간인 성직자들이 교회재정을 불투명하게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모 군인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는 교회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목회자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담임목사인 본인에게 월 사례비(교통비 포함)를 100만 원 넘게 지출할 것을 요구해서 해촉 건의를 한 사례가 있다.

또한, 민간인 성직자 중에는 목회 이외에 본인의 다른 직업(예: 보험 설계사)을 홍보하는 일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었거나, 목회나 설교 준비에는 관심이 없고 군인가족들과 금전 거래를 하는 등 성직자로서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절제한 행동으로 지휘관과 갈등 초래, 부대를 수시로 무단 출입하는 등의 사유로 해촉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내용을 근거로 판단해 볼 때 군의 특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군목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군선교를 할 수 있는 민간인 성직자의 보충이 절실하게 필요할 뿐 아니라, 민간인 성직자는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해 군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소집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IV.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간의 갈등 쟁점

군목이 군선교 사역을 하는 데에도 갈등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임관시 실무교육이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또한 군 생활을 해 가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군복을 입지 않고 군선교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들에게도 역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비롯한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표 13>은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간에 서로가 갈등이라고 느끼는 내용들을 설문을 통해 정리 분석한 것들이다.

〈표 13〉 갈등의 원인에 대한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의 견해

구 분	군목의 견해	민간인 성직자의 견해
군중활동 주 체	• 군목은 지휘관의 참모로서 예하부대 군인 교회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군중활동의 주체자이다.	• 군목보다 숫자적으로 많고 장기적인 사역을 하는 민간인 성직자의 역할이 크므로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를 예우해야 한다.
활동영역	• 민간인 성직자는 군목의 활동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위촉되었으므로, 민간인 성직자 활동영역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 소속 부대 예배활동뿐 아니라, 기타 활동(위문, 상담, 교육) 등에 대해서도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 활동내용에 대해서 간섭할 필요가 없다.

구 분	군목의 견해	민간인 성직자의 견해
지 회 계 통	• 민간인 성직자가 종교활동이나 기타 활동 중에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을 때에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군목의 협조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애로 및 건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 군이 군목과 협조할 필요가 없고 평소에 협조관계가 원활한 지휘관과 직접 업무협조를 하면 된다.
담임목사 호 칭	• 군목이 소속한 부대의 모든 군인교회의 담임목사는 군목이다.	• 민간인 성직자는 대대교회 단독목회를 하고 있으며 담임목사는 민간인 성직자이다.
교회재정 운 영	• 교회재정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필요시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 대대급 교회의 담임목사는 민간인 성직자이므로 군목의 통제를 받을 필요 없다.

V. <육군규정 178>에 근거한 갈등 해결의 방안

가. 군중활동의 주체²⁾

군대 안에서 군중활동의 주체는 군중장교인 군목이다. 특

2)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중활동 지원규정(2001.1. 제정, 육군본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군중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인 성직자의 활동 범위 등 업무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이 되게 하기 위한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지원 성직자 활동

4. 지원 성직자는 지원 활동시 군중장교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유사시 군중장교 우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히 연대급 부대의 경우 연대장(지휘관)이 모든 예하부대의 중·소대에 이르기까지 지휘권을 행사하듯이, 연대에 근무하고 있는 군목은 그 부대에 소속된 모든 종교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군목은 종교활동뿐 아니라, 장병들을 위한 기타 활동(교육 활동, 선도 및 상담활동)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군목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대의 종교활동을 민간인 성직자에게 위임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목은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인 성직자가 지원해 주고 있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민간인 성직자는 자신을 위촉해 준 부대장의 지침과 군중 참모인 군목의 업무지도나 감독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을 군목에게 보고하거나, 애로 사항 발생시 군목의 협조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 민간인 성직자의 활동 범위³⁾

민간인 성직자들로부터 종교활동만 지원 받기 원하는 군목이 있는가 하면, 가능하다면 위문이나 인격지도와 같은 추가적인 활동도 지원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군목들도 있다. 이외는 반대로 예배지원만을 원하는 민간인 성직자와 그 이상 장병들을 위한 활동까지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3)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중활동 지원규정(2001.1 제정, 육군본부)

제10조 지원 성직자 활동

1. 지원 성직자는 종교행사(각종 예배, 미사, 법회 등)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부대 군중장교나 지휘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위문 상담 등을 할 수 있으며, 가정방문도 할 수 있다.

활동범위는 <육군규정 178>에서 자세하게 명시해 주고 있다.

즉, 민간인 성직자가 예배지원 이외의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의 승인이나 해당 부대 군목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민간인 성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뜻만 관철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군목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간인 성직자에게 위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다. 지휘 계통

군 조직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지휘계통의 확립이다. 민간인 성직자는 군목의 추천을 받아 장관급 부대장의 결정에 의해서 위촉된다.

이러한 위촉과정도 일종의 지휘계통이다. 이처럼 민간인 성직자의 활동과 애로사항 건의 등도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밟아서 지휘관에게 보고하되 사전에 군목에게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연대 군목이 사단에 분기말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대대 군중 활동 현황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신자 현황과 출석현황, 세례현황, 그리고 인격지도나 위문활동의 횟수와 더불어 선도활동을 포함한 특이 사항들을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보고 내용은 대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구두 혹은 문서상으로 연대 목사에게 보고되지 않으면 분기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 또한, 민간인 성직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휘관들은 그러한 책임을 민간인 성직

자에게 묻기보다는 군목에게 묻기 때문에 당연히 군목은 이하 부대의 모든 군중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또한 알아야 하며 때로 지도해야 한다.⁴⁾

라. 담임목사의 호칭⁵⁾

군인교회를 전담하는 일부 민간인 성직자들은 담임목사의 호칭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은 <육군규정 178>에 명시되어 있다. 즉, 담임목사라는 호칭은 해당부대의 군중 참모인 군목이나 지휘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부를 수 있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군목이 민간인 성직자의 담임목사 호칭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 성직자가 군목의 승인하에 후보에 담임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되, <연대

4)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중활동 지원규정(2003.5.1 부분개정, 육군본부)

제12조 지원성직자 군중활동에 관한 사항 보고의무

지원 성직자는 대주 1회 모든 군중활동을 상급부대 군중장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중활동 지원규정(2001.1 제정, 육군본부)

제10조 지원 성직자 활동

2. 전담 지원 성직자는 소속부대의 해당종교 군중장교(참모)가 동의하면(해당종교 군중장교 미보직시 차상급부대) 해당 종교시설의 담임목사, 주임신부 주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행사에 관해서는 군중장교에 준하여 활동할 수 있고 기타 활동은 지휘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수시 지원 성직자는 해당 종교시설의 담임목사, 주임신부 주지가 될 수 없다. 단 소속부대 해당종교 군중장교(참모)가 동의하는(해당종교 군중장교 미보직시 차상급부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목 혹은 군종참모 : 홍길동>이라는 명칭도 함께 기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군목이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서 담임목사의 호칭을 승인할 수 없다면 차선택으로 협력목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 교회 재정⁶⁾

종교 기금관리에 관한 내용은 <육군규정 179>에 명시되어 있으며, <군종 목사단 내규>에도 나와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 의하면 군인교회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군종감 또는 지역 군종목사단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군인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교회의 재정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간인 성직자가 사역하고 있는 대대군인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민간인 성직자는 교회 재정은 담임목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투명성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 발생시 윤리적인 책임을 지고 재정감사를 받아야 한다.⁷⁾

6) <육군규정 179> 군종 업무 규정(2001.1.1 부분개정, 육군본부)

제24조 기금관리

2. 교회, 성당, 법당에서 사용되는 종교기금은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및 집행하되 문제가 있을 때 군종감은 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종활동 지원규정(2003.5.1 부분개정, 육군본부)

제12조(추가) 지원 성직자 군종활동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

지원 성직자의 종교시설 현금(시주금)을 연 1회 사단 군종참모(보좌관)가 감사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금번에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들간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선교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간에 형성되어 있는 세 가지 역할 모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독립적인 모델이다. 이는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이 서로의 활동영역을 간섭하지 않고, 만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사역에만 최선을 다하는 모델이다. 둘째는, 상호 대결적인 모델이다. 민간인 성직자는 군목을 자신의 군선교를 방해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군목 역시 민간인 성직자를 군선교의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델이다. 셋째는, 상호 협력적인 모델이다. 즉, 민간인 성직자들은 군목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와 상호협력하면서 군선교 사역을 극대화해 가고 있는 모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효율적인 군선교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주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서로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위치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협력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언

민간인 성직자의 위촉이나 활동영역 그리고 해촉을 하는 원칙들이 국방부 훈련이나 육군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법대로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민간인 성직자들의 윤리성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군선교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군목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 그리고 이 두 집단을 대표하는 기관인 군종목사단과 군선교연합회가 해야 할 일들을 제언함으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가. 군목

첫째, 민간인 성직자 위촉시에 철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군목이나 지역군목단은 군선교연합회에서 추천한 민간인 성직자에 대해서 심의하고 면접을 실시할 때에 몇 가지 사전 교육이 있어야 한다.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종활동 지원규정에 명시된 것 중에서,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와의 관계, 소집(보안)교육 참석의 의무,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 연 1회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및 해촉 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며 필요시 서약서를 받아 놓음으로써 갈등의 여지를 없애는 일이 필요하다.

둘째, 군목들도 육군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⁸⁾

예를 들면, 정기적인 소집교육이다. 육군규정에 소집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목 주관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민간인 성직자에게 위촉 당시 교육했던 것들은 의미가 없다. <표 8>에 의하면 설문 응답한 군목 중에 48%인 40명이 민간

인 성직자 소집교육을 미 실시했거나 무응답했다. 미 실시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군목은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간인 성직자가 군선교에 협조적인 동역자가 되도록 주도적인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민간인 성직자는 매우 협조적인데, 군목이 매우 비협조적이거나 비인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는 군목이 책임져야 한다.

셋째, 민간인 성직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 2>에 나타난 1인당 담당교회 숫자, <표 3>의 부대별 사역규모 또한 <표 5>의 군인교회에 참석하는 신자 숫자, 그리고 육군규정에 명시된 여러 가지 사항만을 보더라도 군선교는 군목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민간인 성직자가 인원수는 다수이지만 그들을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은 군목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약자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를 야박하게 대하기보다는 민간인 성직자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지도해 준다는 차원에서 좀더 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군목은 민간인 성직자를 대할 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개인적인 정실에 얽매어 민간인 성직자에게 육군규정을 차별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군선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원성을 사게 되며, 나아가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의 갈

8)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종활동 지원규정(2001.1.1 제정, 육군본부)

제11조 지원 성직자 교육참석 의무

지원 성직자는 군 정신전력 증강에 필요한 교육에 연 2회(해당부대 1회, 중단 1회) 이상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등의 폭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육군규정에는 민간인 성직자 위촉 연령이 65세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보다 연령이 많은 목사님을 추천하여서 위촉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선배 목사님들에게 종종 받게 된다. 군선교가 더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육군규정과 같은 법 적용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의식 있는 군목이 되어야 한다.

나. 민간인 성직자

첫째, 육군규정에서 정하는 각종 규정을 지켜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다. 민간인 성직자가 군이나 군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정당해도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설득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민간인 성직자는 우선적으로 <육군규정 178> ‘민간인 성직자 군중 활동 지원 규정’(2001. 1 제정)에 따라 활동하되,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다면 해당 부대의 군목이나 군중목사단, 혹은 군선교연합회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둘째, 군목과 협조를 통해서 사역을 하겠다는 위촉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간인 성직자와 군목간 갈등의 주된 원인은 민간인 성직자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군목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생각은 위촉을 받을 당시부터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목은 1-2년 주기로 바뀌는 반면 민간인 성직자는 장기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다.

셋째, 교회제정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무리한 사례비 요구를 삼가야 한다. 군인교회가 민간인 성직자의 생활비를 책임

지겠다고 결정한 후에 초빙한 것이 아니다. 군인교회 성도들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위촉의 과정을 거쳐 사역하게 된 것이다. 최초에는 무보수로 혹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을 알면서도 군선교에 헌신하겠다는 사명으로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민간인 성직자가 민간교회 성도들에게 주장하듯이 군인교회에서 대접받으려 한다면 이는 자원 봉사하겠다고 한 민간인 성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넷째, 민간인 성직자는 압력단체가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민간인 성직자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생각은 무모한 발상이다. 위촉받아 활동하고 있는 민간인 성직자가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군목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건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외에 무리하게 군인아파트 입주를 요구한다거나, 군목들과 동등한 처우를 해 달라고 한다거나, 최소한의 사례비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군에서 민간인 성직자를 위촉할 때 일정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어떠한 타당성도 없다.

그러므로 민간인 성직자 자치회가 군선교 전략을 위한 모임 내지는 회원간의 친선 목적 차원을 넘어서 메스컴을 통해 군에 해를 끼치는 집단 성명서를 내거나, 군목을 비방함으로써 반사이익을 노리겠다는 불순한 생각은 오히려 민간인 성직자 스스로 울무를 매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일에 가담하게 된 자는 분명히 해촉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

다. 군중 목사단

첫째, 군선교 사역자간의 문제 발생시 적극 대처를 해야 한다. 그 방안 중의 하나는 군목과 민간인 성직자간에 갈등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국방부 훈령이나 육군규정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방부 훈령 제691호」(‘01.11.12 제정)와 「육군규정 178」(‘01.1.1 제정)에 민감한 사안이 제정되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천주교나 불교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독교 민간인 성직자만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할 때는 ‘군종목사단 운영내규’를 능동적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종목사단은 법령 제정시 군목단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 없이 일부 정책 부서에 근무하는 몇몇 군목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령이 제정되었을 경우, 만약에 그러한 법령이 대다수 군목들의 의견과 배치될 경우 군종목사단 집행부가 불신임을 받을 수 있으며, 일관성이 있어야 할 군선교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셋째, 국방부 훈령이나 육군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육군규정 178>에 의하면 군선교연합회가 민간인 성직자를 추천하고, 지역 군목단의 심의를 거쳐 장관급 지휘관의 결재로 위촉이 된다.

그러므로 군종목사단은 지역 군목단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를 감독하며, 필요시 민간인 성직자에 대한 군종목사단의 의결사항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역군목단과 유기적인 연락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간인 성직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존안해야 한다. 본 연구자가 금번 발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

꼈던 것은 군선교연합회를 포함하여 군종목사단에서조차도 민간인 성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전 군에서 사역하는 민간인 성직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인원수, 소속교단 연령, 위촉받은 시기 및 지원동기, 전임 사역자 인지 아니면 민간교회를 담임하면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촉자 명단 및 해촉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군종목사단은 이러한 자료들이 수집 보존되고 필요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행위원이나 중앙위원회에 책임을 부여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라. 군선교연합회

첫째, 군선교연합회는 상호 공존의 자세로 군종목사단과 긴밀한 협조 및 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현재 군선교연합회에서는 군종목사단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공조관계가 지금보다 더욱더 견고한 관계가 되어서 모든 군목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군선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 성직자들을 군목들이 안심하고 지휘관에게 위촉건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군선교연합회는 민간인 성직자 추천시 신분이 확실하고 검증된 민간인 성직자를 초교파적으로 군종목사단에 추천해야 한다. 만일 군선교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 성직자가 소속부대 군목과의 갈등을 일으켜서 해촉이 된다면 그 민간인 성직자를 추천한 군선교연합회의 신뢰성이 추락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선교연합회에 의해 추천받아 위촉된 민간인



비전 2020

21세기 군선교 목표	군복음화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
약속의 말씀	•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속 13:9) •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16)

비전2020운동이란?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의 결실로 매년 군인신자 25만 명을 일반 군선교 회원교회로 연결, 사랑의 양육을 통해 다가오는 2020년 3,700만 명(전 국민의 75%) 성도의 나라를 만들어 군·민족·인류 복음화에 이바지하므로 ◆국가적으로는 모범 국민 육성과 건강함 사회를 만들자는 애국애족 운동이요, ◆군으로는 장병들의 사교예방, 사기진작으로 명량한 병영생활을 만들자는 신앙전력화 운동이요, ◆교회로는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하자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입니다.

목표

1996년	25년후	2020년
1,200만 기독교신자 (25%)		3,700만 기독교신자 (75%)

전략

3천7백만 성도의 나라	군인교회	▶ 목표 - 신앙전력화: 사교예방, 사기진작, 명량한 병영생활 조성 - 불신전우전도, 결연, 수세 - 매년군인신자 25만 명 연결(군세례인원 22만 명+입대세례교인 3만 명) ▶ 핵심 실천사항 - 한생명살리기 5대 실천사항 적용
	군선교연합회	▶ 목표 - 21세기 기독교운동 실천(군·민족복음화) - 교단, 교회 연합사역 실천 ▶ 핵심 실천사항 - 미래출석교인 양육 종합관리(정책, 행정, 전략) - 군선교 회원교회 육성 - 전국지역중심의 실천(지회육성) - VIP(귀빈) 가족전도 프로그램 보급 - 업무 전산 시스템 구축(네트워크)
	군선교회원교회	▶ 목표 - 교회부흥: 미래출석교인 등록(매년군인신자 25만 명 결연) - 지역복음화: 625만 명 믿음의 가정(매년 25만 명×25년) - 민족복음화: 3,700만 성도의 나라(625만 명×4인가족+1,200만 명) ▶ 핵심 실천사항 -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적용 - VIP(귀빈) 가족전도 실천사항 적용

전술

군인교회-한생명 살리기 5대 실천사항	
1. 불신 전우 전도	· 불신장병대상 적극적인 전도
2. 결신 전우 세례	· 신교대, 일반부대 등 수세 인도
3. 초신 전우 양육	· 1:1 사랑의 청지기 신인 결연(전입병 면담) · 예배참석, 성경공부, 교회, 봉사활동 등
4. 양육 전우 결연	· 군인신자카드 작성 제출
5. 결연 전우 관리	· 일반교회 결연 후 양육상황 점검

군선교회원교회-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사항	
1. 사랑의 청지기	· 1:1 집중관리자 선정, 전담부서 조직
2. 사랑의 등록	· 연결 군인신자를 미래출석교인으로 등록
3. 사랑의 기도	· 1·1·1 기도실천, 공식행사시 기도 · 매일(1) 그 영혼, 그 부대(1)를 위해서 1분(1)이상 기도
4. 사랑의 편지	· 사신, 주보, 도서 등 우송
5. 사랑의 선물	· 마음을 담은 기호품 선물 우송
6. 사랑의 심방	· 직접 부대 방문 심방
7. 사랑의 초청	· 휴가·외박시 교회로 초청
8. 사랑의 영접	· 전역시 영접, 환영 예배
9. 사랑의 전도	· 가족전도의 기회(명소)
10. 사랑의 헌금	· 전도, 세례 등 선교비 후원

나와 우리의 사명은?

1. 기도하기: 매일 순간마다 비전2020운동의 결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참여하기: 섬기는 교회가 비전2020운동에 참여토록 함과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사역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참여합니다.
3. 헌신하기: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주변에 홍보하고 섬기는 교회나 단체에서 군선교연합회 후원 회원 가입 등 헌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 재능을 온전히 바쳐 실천합니다.

비전2020운동을 실천하는 —

MEAK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MEAK)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02)744-2661~3, 3675-2020 FAX:(02)742-7954
 E-mail: meak@v2020.or.kr http://www.v2020.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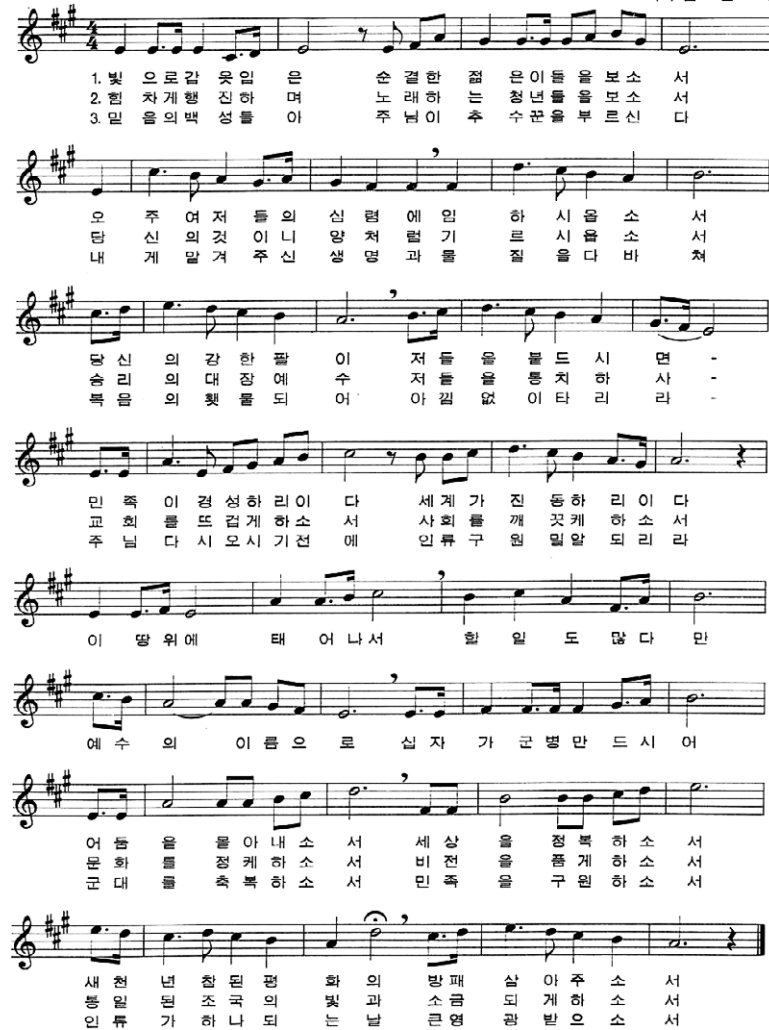
중부지회: (042)551-2021	부산지회: (051)627-4740
대구지회: (053)422-4826	광주지회: (062)652-5020
동부지회: (033)745-0416	제주지회: (064)744-2661
전북지회: (063)533-7727	충북지회: (043)836-3572
울산지회: (052)266-1904	경남지회: (055)262-7311
강원지회: (033)241-4361	전남동지회: (061)745-9912
영동지회: (033)681-5871	충남지회: (041)561-2020
경북지회: (054)276-9130	필라델피아: 215-497-5016
L.A 지회: 310-782-7773	지회: 215-497-5016
시카고지회: 773-545-8348	시애틀지회: 206-367-5858
뉴욕지회: 718-229-9191	워싱턴지회: 703-323-7221

군 선교의 노래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행진곡풍으로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민식



1. 빛으로 감옥의 문은 닫혀 있어
2. 힘차게 행진하며 노래하는 청년들을 보소서
3.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 수권을 부르신다

오 주여 저들의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담신의 것이니 망쳐라 기쁘시옵소서
내게 맡겨 주신 생명의 열매를 맺을 다 바쳐

당신의 감한 팔이 저들을 붙드시면
승리의 대장에 수치를 치하사
복음의 햇빛이 어둠을 없애 타리리

민족이 경성하리이다 세계가 진동하리이다
교회를 드림게 하소서 사회를 깨우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인류 구원 일할 도리라

이 땅 위에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 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군병만 드시어

어둠을 몰아내소서 세상을 정복하소서
문화 정케 하소서 비전을 품게 하소서
군대들 축복하소서 민족을 구원하소서

새 천년 창된 평화의 방패 삼아 주 소서
봉헌된 조국의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인류가 하나 되는 큰 영광 받으소서



군선교신학 1

2004년 5월 25일 인쇄

2004년 5월 30일 발행

발행처/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TEL/02-744-2661~3, 02-3675-2020

홈페이지 ; [http : //www.v2020.or.kr](http://www.v2020.or.kr)

E-mail ; meak@v2020.or.kr

제작처/ 쿼란출판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1005호

TEL/745-1007, 편집부/745-1301 ~2

영업부/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0502-756-1004

0505-745-1007

홈페이지 ; [http : //www.qumran.co.kr](http://www.qumran.co.kr)

E-mail ; qumran@hitel.net

qumran1@hosanna.net

등록/제1-670호(1988. 2. 27)

값 12,000원

책임교열 : 임영주·김향숙